

## 『위대한 개츠비』와 자기결정의 윤리

이 일 수

### [국문초록]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최근 연구 경향은 이 작품을 미국의 근대적 남성성 상실을 애도하는 서사로 읽는 것이 지배적이다. 변경을 개척한 진취성과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자상함을 갖춘 19세기 전인적 남성성이 종말을 고하고 맹렬한 자본 증식의 경쟁을 감당할 무자비한 경쟁적 남성성이 부상함으로써 그 상실된 과거 남성성에 대한 애도가 이 작품에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애도 서사적 견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개츠비의 물질적 성공 추구에 내재된 자본가적 욕망을 과거의 온전한 남성성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산자의 익명성에서 탈피하여 자본의 위력에 의해 데이지를 되찾으려 한 그의 욕망은 20세기 초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스템이 낳은 자본가적 욕망이다. 그러나 화자 닉이 직관적으로 포착한 대로, 개츠비에게는 임의적이고 예측이 불가한 신흥 소비권력에 굴복하는 초기 자본가적 측면과, 그 권력의 임의성에 굴하지 않고 무가치한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자기희생의 결단을 내린 윤리적 개인의 측면이 공존한다. 작가는 그의 에세이집 『재즈 시대』에서 절망적 현실을 변화시킬 자기결정의 지성을 요청했다. 이 지성은 삶의 상충하는 이념들을 관용적 태도로 수용하면서도 현실변화에 대한 명확한 자기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이다. 『위대한 개츠비』는 자본을 축적하여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존재 가치를 실현하려 한 개츠비의 실패를 다루지만, 그 실패가 절망적 현재를 변화시키려는 희생과 헌신의 자기결정의 윤리를 체현한 것임을 독자에게 일깨운다.

주제어: 『위대한 개츠비』, 자기결정, 남성성, 애도, 소비자

## 1.

F. S. 피츠제럴드(Fitzgerald)는 그의 자전적 에세이집 『재즈 시대』 (*The Jazz Age*)에 수록된 「정신적 파탄」 (“The Crack-Up”)이라는 글에서 미국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지성으로서 고티항(拮抗)적 사고에 기반을 둔 자기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일류급 지성의 척도는 두 개의 상반된 생각을 동시에 견지할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역할을 해낼 능력을 보유하는가이다. 예를 들자면 그는 사태가 절망적이라는 것을 볼 줄 알면서도 이를 다르게 만들 결의가 있어야 한다.

[T]he test of a first-rate intelligence is the ability to hold two opposed ideas in mind at the same time, and still retain the ability to function. One should, for example, be able to see that things are hopeless and yet be determined to make them otherwise. (55)

1920년대를 뒤돌아보며 1931년부터 1936년에 걸쳐 작성된 이 회고조의 에세이에서 그는 자신이 사회와 인생의 중심 바깥으로 밀려나 있기를 자처하여 정신적 파탄과 무가치함에 직면했음을 토로한다(55-57). 절망의 나락에 빠진 문인으로서 피츠제럴드가 미래사회의 희망과 지성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일견 어폐가 있는 듯하지만, 좌절이 깊은 만큼 대안적 희망과 가치를 더욱 뼈저리게 실감할 수도 있다. 특히나 그의 대표작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 이하 『개츠비』)는 1920년대 급속한 삶의 가치 변화에 직면한 작가가 미국사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 관한 최근 비평 흐름은 미국의 근대가 치러낸 국민적 상실, 과거에는 삶

의 가치로 여겨진 것들이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것들로 전락했음을 애도하는 서사로 읽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비평 흐름을 주도한 학자들로는 그렉 포터(Greg Forter), 미첼 브라이트와이저(Mitchell Breitwieser), 세스 모글린(Seth Moglen)을 손꼽을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적 지적은 19세기 미국 팽창기를 거쳐 20세기 초 자본주의 이행과정에서 미국인의 삶의 양식과 의식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포터의 경우, 개혁정신과 자애로운 헌신을 견비했던 19세기의 이상적 백인 남성성을 개츠비(Gatsby)가 구현한다고 보고, 그러한 근대 미국의 남성성이 20세기 초에 파멸되었음을 애도한 서사로 『개츠비』를 읽어낸다. 브라이트와이저 역시, 『개츠비』를 지나간 것, 종말을 고한 것에 대한 애도서사로 읽고는 있지만, 미래에 대한 새로운 건설 과정으로서의 애도라는 관점을 부각시키면서 개츠비의 꿈을 당시 미국인의 집단적 꿈의 맥락 속에서 해석한다(22). 개츠비의 종말과 닉(Nick)의 애도를 통해 미처 실현되지 못하고 유예되는 참다운 미래를 실현하고자 한 미국인들의 집체적 욕망이 이 작품에 담겨있다는 것이다(22-23).

모글린은 포터, 브라이트와이저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이 20세기 초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을 겪으며 과거 가치를 상실당한 미국인 의식을 담아냈다고 본 점에서 그들의 대전제를 공유한다. 또 다른 평자 헨리 아이데마 3세(Henry Idema III)는 “울부짖는 20년대”(roaring twenties)를 초기 청교주의가 변질되어 본격 세속화한 시기라 판단하고, 피츠제럴드가 그 자전적 경험과 문학적 야심에 지배당한 결과, 평생 집착했던 돈과 사랑, 웃가지들을 잃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193)을 주로 다루었다고 지적한다. 작가의 자전적 경험에 깊은 주의를 기울인 평자가 또 있다. 조나단 슈프(Jonathan Schiff)는 작가가 어릴 때 손위 누이 두 명이 사망한 일화를 소개하며 우울한 가정환경과 슬픔에 빠져 살았던 어머니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여성인물에 대한 비하와 미화라는 양가적 감정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13-14).

이 글은 『개츠비』를 애도서사로 간주하는 위와 같은 비평 흐름에서 특히 포터의 입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 미국인의 변화된 의식을 검토하는 그의 입장이 미국의 역사와 사회 현실에 가장 주도면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포터는 피츠제럴드를 위시한 20세기 초 모더니즘 작가들이 “1880년 이전을 지배했던 백인 남성성의 형식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느꼈다”(1)면서, 19세기 백인 남성성은 변경을 개척했던 진취성과 공감 능력을 두루 겸비했음을 주장한다. 진취성과 공감, 헌신을 겸비한 전인적 남성성이, 20세기에 이르러 맹렬한 자본 증식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무자비한 경쟁적 남성상이 부각됨에 따라 종말을 고했던 시대상이 『개츠비』에 담겨있다는 것이다(1-4).

이 글에서는 위에 언급한 애도서사 비평의 대전제에 대략 동의하면서도 본문 첫 장에서 다음의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포터의 주장대로 19세기의 이상적 남성성의 좌절양상으로서 개츠비의 경험을 읽을 때, 그 남성성에 내포된 가치와 온전함을 개츠비라는 인물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옛 애인 데이지(Daisy)를 되찾고자 했던 그의 일념,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미하고 익명적인 자신의 과거를 쇄신하여 부자들의 대열에 합류하고자 했던 그의 야심, 데이지의 우행과 파렴치함이 여실히 드러난 무가치한 현실에서도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려 한 그의 헌신적 결단에는, 불모의 개척지를 자기소유의 농지로 일궈가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던 19세기 남성의 면모가 읽히는 면이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낭만주의적 면모를 달리 보자면, 20세기 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여 사적 욕망을 실현하고자 한 현대 자본가들의 발생기적 양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애도서사 비평들이 대체로 동의하는바, 개츠비를 19세기 진취성과 공감력을 갖춘 온전한 인격의 발현으로 보는 전제는—19세기 백인 남성의 그러한 개인적/집단적 됬됨이에 대한 서구 비평가들의 굳건한 신뢰에 동의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어찌 됐든 그러한 됬됨이의 실현이 불가능해진 20세기 초의 변화된 사회상이 어떠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게 하는 전제라 여겨진다. 더 나아가 개츠비의 비극을 관조하며 애도 어린 공감을 보내는 닉의 서사까지 고려한다면 당대 미국의 젊은이들이 절망적 현재에서 실현가능한 변화를 도모한 바를 읽어내려 한 애도서사 비평의 함의도 크다. 그러나 이 작품이 공감 능력과 진취성을 겸비한 남성상을 추억하고 그 종말을 애도하는 바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든 미래를 열어

가는 인간의 항상적 도전이 무엇을 원천으로 삼는가에 대한 탐구가 더 치열하게 모색되고 있다는 인상을 피할 길 없다. 자본 축적과 물질적 성공을 통한 삶의 우월성 확보를 삶의 최우선 논리로 수용한 이들의 갈망과 도전에 내포된 계층화되고 자본화된 요소들을 드러내고, 그 요소들의 난맥상을 돌파하는 인간의 항구적 저력을 전달하는 측면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츠비』가 자본축적의 논리를 수용하고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며 그 논리의 안과 바깥을 치열하게 겪어낸 자들만이 획득하는 새로운 종류의 힘에 관한 서사가 아닐까 하는 반문이 일게 된다.

브라이트와이어의 비평이 이야기하는 질문도 있다. 상실된 과거 가치에 대한 건강한 애도를 통해 미래를 새롭게 건설하려는 미국인의 의지가 『개츠비』에 재현되어 있다는 그의 주장 자체는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지만, 그 과거 가치라는 것이 보편적 합의를 할 수 있는 성질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개츠비』의 결말에서 닉이 떠올린 개척기 선조들의 부푼 희망은 이 작품이 미국의 미래를 개척할 새로운 가치에 관한 어떠한 포괄적 발언임을 드러내주는데, 과연 상실에 초점을 맞추어 애도 서사로 이 작품을 읽어내는 작업이 미래가치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의 문이다.

미국 변경을 개척하여 완성한 19세기 이상적 백인 남성이라는 전제 자체도 다분히 문제적이다. 다만, 이를 본격적으로 다룰 지면은 아니므로 과거 백인 남성성의 ‘건강한 측면’에 자양분이 되었을 삶의 자세가 20세기로 계승되면서 변질된 바를 추적하고, 그 변질 과정 속에서도 개개인들이 끝내 지켜낸 삶의 윤리에 주목하는 방식이 유효한 독법이 될 수 있겠다. 따라서 본론 첫 장은 잃어버린 과거를 회복하려 했던 개츠비의 집요한 욕망이 포터가 전제한 바 19세기 변경개척기의 ‘온전한’ 미국 백인 남성성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점, 달리 말하자면, 자원 축적과 소비를 통해 자아실현과 행복을 추구한 본격 산업사회의 자본가적 욕망에 가까운 측면을 검토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가 마주한 현실이 절망적이고 무가치한 것임이 드러났다 해도 그 속에서 유의미한 미래 가치를 포획하고자 한 헌신적 자기결정의 윤리를 체득하였음을 읽어내고자 한다.

본론의 두 번째, 세 번째 장에서는 1920년대 미국인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개츠비와 머틀(Myrtle)의 갈망을 분석하고, 자본 축적이라는 당대의 거대서사에 대한 대중의 순응과 수렴 양태도 삶의 가치판단적 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분기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작가가 통찰한 ‘참된 지성’의 내용을 검토하여 개츠비와 닉의 경험이 형성하는 자기결정의 서사를 읽고자 한다. 일체의 가치판단으로부터 한걸음 물러난 듯한 닉의 관조적 입장은 개츠비와 같은 도전과 헌신을 결여했다는 점에서, 익명과 빈곤을 타개하려던 미국 대중의 분출하는 상층 지향적 에너지에 직면한 중상류 계층 미국인의 시선을 대변한다. 그리하여 사회적 공감 능력은 있으나 향상심과 도전 의욕을 결여한 닉과 더불어, 자본의 위력과 그 보상을 확신해마지 않던 개츠비의 상향적 도전과 실패를 교착하여 미래의 삶에 긴요한 자기결정의 윤리를 개인들이 확립하는 과정, 그 안에 함축된 복잡하고 계층화된 측면을 탐구한 피츠제럴드의 창조적 글쓰기 지평을 가능해보고자 한다.

## 2.

포터가 유독 1880년의 시점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라는 기치를 내걸고 추진된 19세기 미국의 변경 개척이 이 시기에 완료되었음에 입각한 설명일 터이다.<sup>1)</sup> 또한 그가 이 시기를 19세기 “백인 남성성”(white manliness)의 결정적 전환기로 본 것은, 서부팽창과 변경 개척의 완료시점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1880년부터 가속화되어 피츠제럴드가 명명한 ‘재즈 시대’인 1920년대까지 약 40여 년간 1천만 여명을 웃도는 이민자들이 미국사회로 유입된 사실과 연관된다. 1882년에 중국노동이민을 금지하는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이 통과될 정도로 이 기간은 미국사회의 젠더, 인종 시스템의 근간이 변화된 격변의 시기였다.

남북전쟁 종전 후와도 겹치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백인 남성성의 실종 또는 상실에 대하여 포터는 “백인 남성들은 자본주의 근대의 ‘여성화’ 결과로 인해, 그

리고 일터로 유입되는 비백인 노동자들로 말미암아 위태로워진 자신의 특권적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온갖 방법에 몰두했다”고 주장한다(3). 포터가 자본주의 근대의 “여성화”를 거론한 맥락은 그의 책에서 자상함, 동정심을 여성적 덕목으로 칭할 때의 ‘여성’적 맥락과는 좀 다른 것이다. 이는 20세기 초에 이르러 농업사회에 기반을 둔 육체노동의 중요성이 점차 퇴화하고 사무실에서의 정신노동이 대세를 차지한 산업사회의 정착으로 말미암아 분업, 고용과 해고 등에 관한 자기결정력을 박탈당한 수동적 임노동자들을 양산했음을 일컫는 개념이다.

1880년 이후 외국 이민자들의 급증과 이들에 의한 임노동시장의 분할로 말미암아 백인 남성들은 좀 더 경쟁적이고 공격적이며 무자비하게 자본을 추구하는 신종 남성상으로의 변화요구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로툰도(Rotundo)의 연구에 따르면, “급여를 받으며 자기 자산이 따로 없는 임노동자들(거의 사무직)이 1870년부터 1910년 사이에 여덟 배나 늘어났다. . . . 이러한 새로운 고용 형태는 ‘자율성이나 생산적 자산 소유권을 주지 못했다.’ 그 결과, 대다수 남자들이 남자다움을 잃는다고 느끼는 의존감이나 영향력 상실을 실감하였다”(Rotundo 재인용, Forter 2).

19세기 백인 남성성이 통합적 젠더와 인종적 순혈성으로 구성된 것이고, 19세기 말에 이르러 급변하는 인종적, 젠더 시스템 속에서 그 종말을 고했다는 포터의 판단에 대해서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볼 일이다. 이른바 ‘개척기의 진취성과 자상함을 두루 갖춘 19세기 백인 남성의 인종적 순혈성’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특정 인종에 대한 이상화, 낭만화 경향이 감지됨은 물론, 비백인 이민자들의 노동시장으로의 대거 편입이라는 사회적 변화 추세 속에서 기득권의 상실과 좌절을 느낀 면을 삶과 죽음에 관한 중차대한 반응인 ‘애도’로 격상시키는 담론은 그 자체로 서구 백인중심적 시각이 아닌가 하는 반문이 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개츠비라는 백인 남성 인물을 통해서 작가가 대안적 삶의 가치를 진지하게 사유했다면, 이 백인 남성의 파국을 해석하려 할 때 그 개인의 인종성은 필히 진지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인종화되고 계층화되어 있는 서사 속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포괄적 발언이 있게 마련이고, 이를 주의 깊게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개츠비』의 가장 주된 줄거리를 차지하는 상층 지향적 갈망, 즉 개인의 출신상의 한계를 뛰어넘고 부와 성공을 통해 사랑을 회복하려는 개츠비의 갈망이 오늘날에도 보편적 호소력을 띠는 만큼이나, 그러한 갈망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당대의 사회요소들에 대한 분석은 빈부, 계층, 인종, 성차를 망라하는 포괄적 접근을 요구하는 작업일 터이다. 이 작품의 서사에서 빈부와 계층의 문제는 인종이나 성차의 문제보다 전면에 부각되는 사회요소들이다. 개츠비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집약하는 키워드는 부와 소비이다. 고급 저택의 사치스러운 외관과 그 내부의 호화 파티 등 개츠비의 부를 확인시켜주는 일련의 가시적 성과들은 그것들이 데이지에게 유의미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개츠비가 부단히 축적해온 물질 자원은 데이지를 감동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그의 드레스룸에 첩첩이 쌓인 고가의 셔츠들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그 한 예이다.

우리가 감탄하는 사이 그는 더 많은 셔츠를 가져왔고, 부드럽고 값비싼 셔츠 더미는 높아져만 갔다. 줄무늬, 소용돌이무늬, 격자무늬의 셔츠들, 그 산호색, 녹황색, 라벤더색, 옅은 오렌지색 셔츠들에는 옷 주인의 이름 이니셜이 인디언 블루색깔로 새겨져 있었다. 갑자기 데이지가 억눌린 목소리를 내더니 셔츠 더미에 머리를 파묻고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 . . 두터운 셔츠더미에 감싸인 그녀의 웅얼거림이 들렸다. “너무 슬퍼.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들은 처음 봐.” (우리말 번역은 필자)

While we admired he brought more and the soft, rich heap mounted high—shirts with stripes and scrolls and plaids in coral and apple-green and lavender and faint orange, with monograms of indian blue. Suddenly, with a strained sound, Daisy bent her head into the shirts and began to cry stormily. . . . her voice muffled in the thick folds. “It makes me sad because I’ve never seen such—such beautiful shirts before. (73-74)



일일이 옷주인의 이름을 새겨 넣은 고가의 맞춤 셔츠 더미는 일상의 필요를 뛰어넘는 잉여자본의 축소판일 뿐 아니라, 대량생산 아이템을 소비하는 여타의 익명 소비자와 자신을 구분하려는 차별적이고 우월적 소비를 상징한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데이지에게 개츠비의 셔츠들은 전대미문의 “아름다움”의 가치로 환원된다. 중요하게도, 데이지와 개츠비는 이 물적 자원의 교환 가치에 대한 상반된 전제를 가진 해석자들이다. 개츠비의 집요했던 물질적 성공 추구는 데이지의 사랑을 되찾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그의 물적 자원은 데이지와의 교환 가치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데이지에게 물적 자원은 그것을 현재 소비하고, 앞으로도 소비할 수 있음으로써 삶이 삶다워지는, 삶의 구성적 요소이다. 어찌보면, 남편 톰(Tom)의 불륜에 비참해하면서도 “그녀와 톰이 속한 다소 우월한 사회 멤버십”(her membership in a rather distinguished society to which she and Tom belonged, 18)에 안주하는 데이지의 결정은 지극히 계층화된 자본 중심적 결정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그녀에게 “우월한 사회”는 물적 자원이 있다고 해서 진입이 가능한 그러한 종류의 사회가 아니다. 개츠비의 집 파티에 모인 대중스타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개츠비가 사는 뉴욕 웨스트에그(West Egg)라는 “이 전례 없는 ‘장소’”(this unprecedented “place”)와 “직설을 피해 돌려 말하는 해묵은 표현들에 짜증을 내는 날것의 활기”(its raw vigor that chafed under the old euphemisms)에 거부감 어린 두려움을 느낀다(86). 이 거부감의 근원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개츠비의 파티의 그 격없음이 그녀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낭만적 가능성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in the very casualness of Gatsby’s party there were romantic possibilities totally absent from her world, 87). 계층적 우월성과 배타성을 삶의 명분으로 삼는 전통부유층 출신의 데이지에게, 그 명분으로부터 자유로운 격없음이 활개를 치는 개츠비의 세계는, 계층적 우월감과 비교우위의 배타적 소비를 기반으로 형성된 데이지의 특권의식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서, 결말부에서 개츠비에게 살인혐의를 전가하고 떠나버리는 부캐넌(Buchanan) 부부의 부당하고도 잔혹한 모습을 예견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는 달리, 5년 만에 데이지와 해후를 한 직후부터 닉의 시선에 비친 개츠비는 자신의 물질 자원으로 배타적 우월성을 얻어내려 한다기보다는 그 자원을 맞바꾸어 자신과 그녀의 삶의 사연이 지닌 가치를 현재화하려는 면이 강하다. 데이지가 그간 꿈꾸던 과거의 여인에 미달함을 직감하면서도 개츠비에게 그러한 미흡함의 원인은 데이지도, 그 무엇도 아니다. 닉이 바라본 개츠비는 이러하다. “그는 창조적 열정을 품고 그 환영에 자기 자신을 온통 던졌다. 시종일관 그 꿈을 덧대어가면서, 살아가며 맞닥뜨린 모든 밝은 깃털들로 그 꿈을 장식한 것이다. 그 어떤 것도 [환영으로 가득 찬] 남자의 가슴에 지퍼진 불길, 그 생생함을 능가할 수는 없었다”(76).

물질 자원과 삶의 사연이 지닌 가치를 교환하거나 그 자원을 통해서 삶의 사연이 지닌 가치를 ‘물화/가시화’하려는 개인의 기제를 이 작품에서 탐구하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라는 사회학적 명제를 둘러싼 혼하고도 선부른 가치판단 경향에 일종의 비평적 유보가 필요하다. 개츠비가 의지한 부의 축적 수단이 불법적인 것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갈망을 무가치하다고 여기거나, 그의 집념어린 연심을 낭만화하거나 하는 해석상의 편향을 벗어나는 길로, 다음 장면을 읽어봄으로써 이른바 자본축적의 욕망도 개개인의 삶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해석상의 분기점을 도출해볼 수 있겠다.

그녀는 자포자기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한때 저이를 사랑한 건 맞아. 하지만 당신도 사랑했어.”

개츠비는 눈을 떴다가 감았다.

“‘나도’ 사랑했다니?” 그는 그녀가 한 말을 되풀이했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탐이 무자비한 어조로 말했다. “이 여자는 닉이 살아있었다는 것도 몰랐어. 아, 데이지와 나 사이에는 닉이 절대 알 수 없는 사연들이, 우리 둘 다 결코 잊지 못할 사연들이 있거든.”

이 말은 마치 개츠비의 몸을 실제로 파고들어 물어뜯는 것만 같았다.

She began to sob helplessly. “I did love him once—but I loved you too.”

Gatsby’s eyes opened and closed.

“You loved me *too*?” he repeated.

“Even that’s a lie,” said Tom savagely. “She didn’t know you were alive. Why—there’s things between Daisy and me that you’ll never know, things that neither of us can ever forget.”

The words seemed to bite physically into Gatsby. (105-6)

위의 장면에서 뒤이어 톰은 개츠비의 불법적 카르텔을 비방하며 “당신 대체 누구야?”(Who are you, anyway? 106)라는 결정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데이지를 되찾고자 했던 개츠비의 꿈을 완전히 와해시킨다. 물질 자원의 가시적 위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개츠비의 성공은 이 순간 톰과 데이지의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익명의 무가치함으로 전락한다. 톰이 개츠비를 공격한 측면은 복잡하지만, 개츠비의 자본축적의 불법성, 출신이나 이력의 한미함보다 훨씬 큰 충격파를 던진 공격은 남녀간에 축적된 배타적 추억이라는 비물질적, 불가시한 요소이다. 즉, 두 남성 개츠비와 톰은 이 장면에서 자신들이 데이지와 과거에 축적한 사연과 기억의 ‘정통성’을 놓고 경쟁한다. 그리고 그 정통성을 입증할 방편으로서 물질 자원을 굳건히 신뢰한다는 점에서도 두 남성은 유사한 가치체계를 공유한다. 개츠비는 톰과 데이지 사이에 축적된 배타적 추억이라는 비물질적, 추상적 가치를 상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고, 과거 데이지를 잃은 유일한 이유를 물질적 결여라 보고 이 결여만 채우면 상실이 온전히 극복되리라 확신했기에, 그는 톰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린다.

두 남자를 모두 사랑했었다는 데이지의 실토가 입증해주듯이, 두 경쟁적 자본가 개츠비와 톰은 물질 자원이라는 기준으로 자신들의 삶의 사연이 배타적 우위와 정통성을 지녔음을 검증받길 욕망하며 이는 타인의 인정과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톰의 자기정당화이다. 여자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남성적 가치는 삶의 곡진한 사연을 공유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 더욱 중요하게는 정당한 부를 가진 자만이 데이지를 돌볼 수 있다는 그의 자신만만함은, 외관상 윤리적이고도 실용적 가치를 기반으로 삼은 듯하다. 그러나 그가 재의 계곡(Valley of Ashes)에 사는 머틀 윌슨과 혼외 관계를 맺고 있고, 빈부 문제나 인종 문제에 관한 독선과 아전인수로 일관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당대의 상류사회에 만연한 무가치하고 부도덕한 측면을

꼬집는 역할을 하는 인물임에는 분명하다. 그의 이러한 면모는, 자본 축적의 위력이라는 동일한 사회요소로 기댄다 할지라도 삶의 가치판단이라는 중대한 요소가 현대적 의미의 자본축적 경쟁구도 속에서도 윤리적 분기점을 생성해내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물질 자원만이 사랑을 되찾아줄 수 있으리라 확신한 개츠비의 집요하고도 순애보적인 연심, 한미한 출신과 가난으로 말미암아 갈망하던 여인을 얻지 못한 그의 좌절은 보편적 공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듯이 19세기 미국 개척기에 자기 소유의 농토와 가족을 건사할 물질 자원을 확보하려 애쓴 진취적이고도 공감 능력을 갖춘 근대 미국의 남성적 꿈으로 개츠비의 꿈을 해석하는 애도서사 비평이 간과한 바는, 그러한 종류의 남성성을 구성하는 근면성실/인품을 개츠비가 구현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어찌보면 이러한 과거의 온전한 남성성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약육강식의 각축이 되어버린 당대 사회상을 개탄한 항의서사로 이 작품을 읽는 것이 비평 상식에 더욱 걸맞지 않을까 반문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반문은 개츠비의 최종적 결단이 지닌 역사적 무게를 되짚어보게끔 한다. 즉 데이지의 우행과 무가치함으로 말미암아 파국에 내몰린 그가 오히려 숭고한 희생을 자처하기로 한 자기결정에 도달하는, 이러한 문학적 서사가 역설적이게도 자본가적 각축이 개인/국가간에 전례 없이 고조되고 손해나 희생보다는 이득과 우월성이 삶의 거대서사로 등장한 20세기 초에 출현한 점에 주목하는 편이 차라리 유의미하다는 생각이다. 이 점을 간과한 채 개츠비의 꿈을 낭만화하거나 그의 파국을 애도하는 비평적 시도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영원히 유예되지만 하는 행복, 데이지를 되찾고자 하는 그의 집요한 추구는 그의 부친과의 장구한 기간에 걸친 격조함, 파티 참석자들을 비롯한 이웃들과의 괴리와 단절, 쓸쓸하기 짝이 없는 그의 장례식으로 귀결된 점에서 작품에 재현된 개츠비의 남성성은 그 자체로 낭만적 이상화를 경계하는 재현이라 봐야 할 것이다.

## 3.

앞에서 논의한 대로, 포터는 20세기 초 미국사회의 임노동적 일상은 각 개인으로부터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개츠비』는 그러한 면에서 당대인들에게 가장 절박했을 새로운 자기결정권의 정립에 필요한 요소들을 탐색한 작품이다. 성공을 꿈꾸는 당대의 미국인들은 그들의 자본 축적의 정당성을 미담으로 스토리텔링하고, 자신들이 품게 된 소비/상향 욕구의 공허한 이면에도 불구하고 그 저변에서 삶의 가치를 축조할 윤리적 좌표—개츠비에겐 녹색 불빛이 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를 갈구했을 터이다. 개츠비와 데이지, 톱과 머틀 등 대부분의 인물들은 외견상 맹목적 물질숭배에 빠져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들은 계층화되고, 자본화된 삶 속에서 그러한 윤리적 좌표가 부재한 무가치한 삶에 순응하거나 이를 스스로 창안해내야 할 과제를 짊어졌다.

이렇게 본다면 개츠비가 데이지와 해후하여 그의 집을 구경시켜주는 일화도 인물들의 다양하고 개별화된 자기결정권의 맥락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일상의 필요를 뛰어넘는 잉여로서 개츠비의 값비싼 셔츠들은 그 자체로는 값어치 없는 공허한 물질에 불과하다. 그 물질의 의미는 전적으로 데이지의 정의내림과 결정에 따라 가치를 달리 한다. 개츠비의 화려한 저택, 술한 파티들의 의미 역시 데이지의 선호와 가치판단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번덕스럽고 무책임해보이기도 하고, 부주의하고 냉소적인 그녀는 시종일관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뺑소니 사고에 책임을 질지 말지를 결정내리며, 개츠비의 혼신을 다한 자원 축적의 예들, 그의 저택, 셔츠더미를 “아름다움”으로 단언하는 “돈으로 가득 찬” 데이지의 목소리는 개츠비의 삶에서 정언명령으로 작동하며 궁극의 가치를 부여받는다. 데이지의 이러한 면모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사회의 소비자적 인간을 예고하는 측면이 있다. 무가치하고 부주의하며 믿을 수 없는 속성으로 가득한 반면, 물적 자원과 소비를 통해 배타적 우위와 특권을 확보하며 자본의 각축을 생성시키는 신종의 소비자 결정권이 데이지의 인물화에서 감지된다.

데이지를 20세기 초 신혼 소비권력의 맥락에 놓고 볼 때 야기되는 문제는, 욕망의 대상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절망적 현실 속에서도 불요불굴의 의지로 데이지를 위해 그녀의 죄를 뒤집어쓰기로 한 개츠비의 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그가 무가치한 소비권력에 굴하여 스스로 파멸을 자초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포터는 데이지의 “무가치함”(unworthiness)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딸을 그저 파티의 전시물처럼 취급하는 그녀의 빈약한 모성, 뺑소니 사고마저 철저히 이기적 회피로 일관한 무책임성에도 불구하고 개츠비가 그녀를 욕망한 것은 “한갓 남자의 환상”(a male imagination)에 불과하다는 맹공격을 퍼붓는다(3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가치한 대상과 절망스러운 현재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헌신한 개츠비의 남성성이 종말을 고했으며, 작가가 “그러한 남성성에 대한 미학적 추모의 매장식”(the manhood’s aesthetic-memorial entombment, Forter 15)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부유한 대상을, 그 부유함 때문에 절실하게 갈망한다는 점에서 머틀 윌슨 또한 개츠비와 유비관계에 놓인다. 욕망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허여되지 않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물질 자원을 축적하고 소비하면 결국 그 욕망을 이룰 것이라는 꿈을 끈 점에서 그러하다. 그녀도 개츠비와 마찬가지로 소비권력을 상징하는 데이지에 의해 파멸을 맞는다. 머틀은 데이지를 둘러싼 남성 자본가들의 경쟁과 각축의 와중에서 톰에게 ‘성적으로 소비될 뿐이며,’ 개츠비의 고급차를 몰고 혼돈과 광란의 질주를 벌이던 데이지에 의해 문자 그대로 짓밟혀 죽음을 맞는다. 그런데도 애도서사 비평이 개츠비의 죽음에서 역사적 남성성을 읽어내는 반면, 머틀에 대해서는 별다른 애도서사적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우면서도 수긍이 가는 현상이다. 갈망에 대한 헌신적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이 삶의 가치판단에서 발원한다고 볼 때, 머틀에게는 이러한 자기결정력이 전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이다. 톰과 밀회 장소로 사용되는 머틀의 아파트는 그 임시성과 공허함, 속물성의 측면에서 “느닷없는 공허”(a sudden emptiness)와 “완전한 고립”(complete isolation)이 감도는 개츠비의 저택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46).

아파트는 맨 꼭대기 층에 있었다. 좁은 거실, 좁은 주방, 좁은 침실과 화장실 한 개. 거실엔 자수 벽걸이 천을 씌워놓은 지나치게 큰 가구 한 세트가 방들 문전까지 바짝 들어차 있어서, 거실을 돌아다니려면 벽걸이 천에 있는, 베르사이유 궁전 정원에서 그네를 타는 귀부인들이 그려진 부분에서 걸핏하면 걸려 넘어졌다.

The apartment is on the top floors—a small living room, a small dining-room, a small bedroom, and a bath. The living-room was crowded to the doors with a set of tapestried furniture entirely too large for it, so that to move about was to stumble continually over scenes of ladies swinging in the garden of Versailles. (25)

비좁고 임시적인 쾌락의 공간인 머틀의 아파트가 왕궁의 귀부인들을 수놓은 자수 걸개그림으로 뒤덮인 풍경을 담아낸 위 장면은, 관현악단과 명품 자동차들, 요트, 흥청대는 파티로 도색된 개츠비의 저택과 병치를 이루며, 역설적이게도 그 안에 사는 주인들의 한미함과 공허감을 극명하게 부각시킨다. 언제든 본인이 원하면 데이지라는 이름을 말할 권리를 부르짖던 머틀은 이 아파트에서 톰에게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며 (31-32), 개츠비의 파티에 초청된 닉과 손님들 사이에서는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를”(drift coolly out of nowhere, 40) 신원미상의 집주인에 관한 온갖 추측과 의혹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 두 인물의 외견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갈망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성취하려 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머틀은 자신의 주변적 삶을 구원해줄 수단으로 톰을 이용하며, 속물적 상층지향 욕구 그 자체가 그녀의 삶의 목적처럼 보인다. 머틀의 성적 방종과 소비적 탐닉의 외견 밑에는 부유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존중받고 싶어 하는 소외계층 여성의 절망이 깔려있지만, 개츠비의 물질적 과시에는 데이지를 돌볼 자원을 보유한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검증 욕구와 그 좌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좌절에 굴하지 않는 자기희생이 깔려 있다. 대략적으로, 애완견과 드레스 등 끊임없이 온갖 것들을 구매하는 머틀과, 호화주택과 집사, 사치스러운 파티를 소비하는 개츠비에게서 삶의 좌표와 가치를 상실한 당대의 보편적 허망감과 절망이 읽히는 것이다. 그 절망이 보편적인 만큼이나 이들 각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도전, 이 도전을 이끌어내는 삶의 가치판단과 자기결단  
이 더욱 긴요해지는 지점이다.

#### 4.

이 글의 서두에 인용한 바대로 『재즈 시대』에서 작가가 요청한 지성은 중용의 태도를 취하면서도 현실을 변화시킬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관건으로 한다. 특히 그 지성의 사례로 “사태가 절망적이라는 것을 볼 줄 알면서도 그것을 다르게 만들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구절은 『개츠비』가 전달하는 미국인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길잡이로 기능한다. 개츠비의 삶은 부와 소비를 보편 가치화하는 사회의 지배적 의미망으로 진입하려는 집요한 과정이었지만, 이를 추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려는 그의 최종적 자기결정은 그러한 류의 지배적 의미망을 초극하는 헌신과 희생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톰과 데이지, 머틀 등 여타 인물들이 보여주는 소비적, 비윤리적 결정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윤리성을 체현한다. 개츠비가 보여준 물질 자본의 위력에 대한 신념이나 편승은 그 시기를 살던 개개인들에게도 당혹감과 고뇌를 야기하는 현안이었음은 피츠제럴드의 다음과 같은 자전적 기술에도 잘 드러나 있다.

주머니에 동전 몇 푼을 짊어대던 그 남자는 일 년 뒤 한 여자와 결혼하고 유한 계층에 대해 변치 않는 불신, 어떤 적대감을 늘 품게 마련이었다. 무슨 혁명 당원의 확신 같은 것이 아닌, 소작농의 끓어오르는 증오 같은 것 말이다.

The man with the jingle of money in his pocket who married the a girl a year later would always cherish an abiding distrust, an animosity, toward the leisure class—not the conviction of a revolutionaries but the smoldering hatred of a peasant. (*The Jazz Age* 64)



부자를 적대시하고 불신하면서도 필사적으로 부를 갈망했던 작가의 이러한 면모에 대하여 헨리 아이데마는 “1920년대의 그 어떤 작가도 피츠제럴드만큼 돈의 매력에 현혹된 사람은 없었다”(181)고 단언했다. 그에 따르면 1938년 피츠제럴드가 자신의 출판 대리인인 해롤드 오버(Harold Ober)에게 보낸 서한에서 “나는 부자를 그 부자라는 이유로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고, 그 사실은 내 온 생애와 작품을 채색해버렸다”고 밝혔다는 것이다(181). 다소 속물적이면서도 그러한 속물적 갈망과 진정한 지성에 대한 갈망이 상충하는 자신의 의식을 가감 없이 직시하고 드러낸 피츠제럴드의 토로에서 그 행간을 잘 짚어보면, 상충하는 의식들에 대한 선부른 편향을 경계하며 현실을 바꿀 결단을 창안해내자는 제안이 깔려있다.

『개츠비』에서 삶의 가치지향이 대단히 양가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인물은 작품의 화자인 닉 캐러웨이다. 매릴린 R. 찬들러(Marilyn R. Chandler)는 “개츠비에게 피츠제럴드적인 면이 있는 만큼이나 닉에게도 그러한 면이 있다. 화자 닉은 문자 그대로 주변부에서 전설적인 삶을 관찰하며 그 저택의 그늘가에 거주하며 한 편의 근사한 연극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듯이 마치 이슈마엘처럼, 초연함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이야기를 전하는 대리체험자이다”라고 설명한다(217-18). 피츠제럴드가 그의 에세이집에서 스스로에 대하여 “왜 나는 내가 두려워하거나 동정하는 대상들과 나를 일치시켰던가?”(69)라고 반문했는데 이는 닉의 순응적 관조와 세상에 대한 그의 연민어린 시선과 매우 닮아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처럼 유리한 처지는 아니라는 것만 명심하라”(5)는 부친의 권고에 따라 닉은 자신이 예일대 출신의, 부유한 집안 자손이라는 특권을 누리는 삶이므로 타인의 삶에 대해 선부른 비판을 삼가고 판단을 유예하지만, 작품 초반에 다소 해명조로 이를 설명한 이유가 짐작되는 측면이 있다. 그는 개츠비와 같은 상층지향의 집요한 에너지나 자기결정력이 부재한, 어떤 면에서 개츠비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닉의 관찰자적 직관 역시 뚜렷한 삶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부유하는 그의 물리적, 정신적 “가로놓임”(in between) 상태에서 발원하는 듯하다. “두 거대한 집들 사이에 짓이겨 넣은 듯”(8) 위치한 닉의 검소한 오두막은 미국의 초기를 이끌던 청교주의적

검소함이 그의 내면에 자리해있음을 말해준다. 그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츠비의 저택의 부유함과 화려함에 감탄하는 언급을 했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작품 중반부에서 그 저택을 “저 어마어마하게 크고 종잡을 수 없는, 집이기를 실패한 집”(143)이라 칭한 것도 세속과 물질에 대한 그만의 견고한 상식이 바탕에 있기에 가능한 언급이겠다. 닉의 서사에서 주목할 점은, 사촌 데이지와 대학 동창 톰의 불행한 결혼 생활, 상류사회에 편입되어 데이지의 연인이 될 자격을 얻기 위해 믿기 어려운 집념을 투여하는 개츠비의 삶을 바라보며 닉은 그 스스로 종전 자신이 견지했던 상식이 미래를 향한 동력을 상실한 정태적, 수동적 무기력일 수도 있음을 깨달아가며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맨해튼의 아파트에서 톰과 머틀의 밀회에 큰 거리낌 없이 합석하며, 그는 스스로가 “인간사의 비밀”에 대하여 “그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바깥에 있는” “무심한 방관자”임을 깨닫는다(30). 그는 개츠비와 같은 집요한 갈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저렴한 방세의 오두막에서 기거하며 하루하루의 정직한 근로를 기피하지 않는다. 닉은 주변 세상과 그 안의 사람들을 무심히 관조하되, 연민어린 공감으로 타인을 대하는 인물이다. 뉴욕에 이주해온 뒤, 도시의 풍경에서 고독한 단절감을 느끼는 닉의 상념은 이러하다.

대도시의 매혹적인 황혼녘에는 간혹 외로움이 끈질기게 나를 찾아들곤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외로움이 있음을 느꼈다. 식당 문전을 서성대며 식당의 저녁밥을 홀로 먹을 수 있는 시간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어스름에 잠긴 채 자기 인생의 가장 쓰라린 밤의 순간순간들을 그저 소모해버리는 가난한 어린 점원들에게서도.

At the enchanted metropolitan twilight I felt a haunting loneliness sometimes, and felt it in others—poor young clerks who loitered in front of windows waiting until it was time for a solitary restaurant dinner—young clerks in the dusk, wasting the most poignant moments of night and life. (47)

닉이 어스름에 잠긴 채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린 도시의 점원들의 고독을 연민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위 장면은, 개츠비가 사관생도 시절 데이지의 부유함, 그 “가난한 자들의 열띤 고군분투 위로 안전하고 오만하게 은처럼 광채를 뿜는 데이지”(119)에 매료되었던 모습과 절묘한 대조를 이룬다. 데이지와의 첫 키스에 대한 개츠비의 추억을 듣게 된 닉의 회상은 이러하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이 비록 지독하리만치 감상적이었지만, 나는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들었던, 손에 잡힐 듯 말 듯 비껴가는 리듬, 잃어버린 단어의 파편 같은 것이 떠올랐다”(강조는 필자, 80). 가난한 자들의 필사적 생존투쟁으로부터 자유로운 부의 표상인 데이지와의 추억은 개츠비에게 절대적 과거, 흠결 없는 과거로 축조되어 마치 개츠비와 데이지의 해후 장면에 위태롭게 위치한 “고장난 시계”처럼 멈추어서 현재를 고착화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츠비의 추억담을 듣고서 닉은 그 과거가 과거지사임을, “아주 오래전” 이미 종결된 것임을 직시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개츠비의 갈망이 과거의 허상을 기반으로 한, 결코 실현되지 않을 미래임을 간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은 그러한 개츠비의 갈망을 관조하며, 자신의 삶에 부재한 것이 바로 그러한 도전과 집념, 헌신임을 절감하며 그에게 깊은 공감을 표하는 것이다.

닉은 개츠비의 꿈이 공허하고 실체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무가치함으로 인한 파멸을 맞더라도, 그 결과를 홀연히 책임지고 감당하고자 한 개츠비에게 주변 인간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미래지향적 가치를 발견한다. 개츠비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닉은 헤어지기 직전 그를 향해 외친다. “그 사람들 다 썩어빠진 무리들이야. . . . 그 망할 것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당신이 훨씬 가치 있어”(They’re a rotten crowd, . . . You’re worth the whole damn bunch put together, 122). 닉이 토로하듯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122) 그가 개츠비에게 위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면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진다. 비록 개츠비가 무가치하고 무책임한 부의 속성에 현혹되어 이에 편승했고, 사랑하던 여인을 상실한 과거의 상흔에 유아론적으로 몰두했더라도, 그녀가 부재한 절망적 현재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획하고 이에 기꺼이 자신을 던져 희생하는 도저한 자기결정의 윤리를 체득했음을 실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 나아가 어떠한 삶의 양태에 대해서도 한 발짝 물러나 관조해야 한다는 닉 자신의 체념적이고 관조적 태도가 실상은 삶에 대한 치열한 도전과 처절한 가치판단의 과업으로부터 도망치는 모습임을, 개츠비의 굳건한 도전과 헌신을 통해 적나라하게 깨달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작품 결말부의 그의 깨달음은 건국 초기의 미국인들이 치열하게 삶을 개척했던 바가 개츠비의 희생적 자기결정과 헌신에 대물림되고 있다는 역사적 자각으로 이어지게 된다.

과거의 상실과 그로 말미암은 상흔을 다룬 문학 텍스트에 관한 포괄적 통찰을 전개한 도미니크 라카프라(Dominick LaCapr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장 강력한 현대 예술양식, 그리고 가장 괄목할 만한 비평양식 몇몇을 보면 . . . . 대개 트라우마적 글쓰기거나 트라우마와 대단히 닮아있는 트라우마 후일담인 경우가 많다. 이 양식들은 또한 트라우마와 신의를 지키는 느낌마저 줄 수 있는데, [상충하는 증거들로 가득한 명제인] 아포리아나, 끝없는 우울과 불가능에 빠진 애도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그로부터 헤어나지 않으려는 저항 방식을 취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Some of the most powerful forms of modern art and writing, as well as some of the most compelling forms of criticism . . . often seem to be traumatic writing or post-traumatic writing in closest proximity to trauma. They may also involve the feeling of keeping faith with trauma in a manner that leads to a compulsive preoccupation with aporia, an endlessly melancholic, impossible mourning, and a resistance to working through. (23)

라카프라가 적절히 비판했듯이, 『개츠비』의 서사에 관철되고 있는 개츠비의 집요한 갈망, 상실로 인한 상흔, 그에 대한 애도의 서사로 이 작품을 대할 때, 상실 그 자체에 지나치게 주목하는 독법은 “트라우마와 신의를 지키는” 기묘한 비평방식일 수 있다. 이러한 독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실에 내재된 사회역사적 의미를 걸러내어 이를 인간 삶의 존엄을 실현할 가능성으로 수렴해내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작품의

결말에서 개츠비의 갈망과 좌절이 건국 이래로 미국인들이 품어온 보편적 갈망과 좌절과 맞닿은 것임을 깨닫는 닉의 회상은 “가로놓인 영역”(the realm of Between)에 대한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사유를 연상하게 한다.

하이데거는 그의 에세이 「홀덜린과 시의 본질」(“Hölderlin and the Essence of Poetry”)에서 희망이 사라져버린 절망적이고 가혹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라짐이 곧 새로운 희망의 구성적 본질임을 갈파한다. 그 현실은 “신들이 달아나버린 동시에 신이 도래하는 시기이며 곤궁의 시기이다. 왜냐하면 이중의 결핍, 이중의 부정에 처하기 때문이다. 신들이 달아나버린 그로 신들의 부재요, 신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 오고 있는 신 또한 부재이기 때문이다”(Heidegger 재인용, Breitwieser 7-8). 하이데거가 말한 “오고 있는 신”은, 우리 인간이 미래의 가치있는 삶을 갈망하고 이에 절망할수록 그러한 곤궁의 시기에 오히려 희망을 상상해내고 그 희망 실현을 스스로에게 명하는 바, 즉 인간의 도저한 미래지향적 자기결정을 집약하는 수사일 수 있다. 20세기 초 인종 대학살의 정변기에 하이데거는 더 이상 기멸만한 삶의 가치가 부재한 가치공핍의 시대에 “오고 있는 신”을 오히려 요청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 작가 피츠제럴드는 그의 에세이 「정신적 파탄」에서 상충하는 삶의 가치관들의 공존을 허여하면서도 절망적 현실의 물꼬를 새롭게 터갈 변화의 원동력으로 “자기결정의 지성”을 요청했고, 자본의 위력이라는 거대서사 속에서도 삶의 존엄을 확보하는 자기결정이 발원하는 바를 『개츠비』에서 탐구한 것이다.

## 5.

피츠제럴드가 그의 에세이들에서 토로했던 ‘정신적 파탄,’ 그리고 부를 향한 열망과 좌절은 비단 작가 자신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세기 초 미국영토 팽창을 성료하고 1차 세계대전을 겪어내며 신형 자본의 열띤 각축이 본격화된 1920년대의 미국인의 삶에서 보편적 현재였을 터이다. 그의 작품 『개츠비』는 삶의 중대한 요소를 상실한 미국 젊은이 개츠비가 그 상실을 “어떤 변화된 미래”로 탈바꿈시키려는 굳은 결

의로 물질적 성공에 도달하지만 그 성공이 그러한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 곤경과 비극을 다루었다. 최근의 비평이 이 작품을 잃어버린 과거, 사라져버린 삶의 가치에 대한 애도서사로 읽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무엇을 상실했는가에 대한 평자들의 접근은 각기 다르다. 미국평창기의 진취적이고도 자애로운 돌봄이 가능했던 온전한 백인남성성의 상실을 잃어낸 포터의 입장은, 20세기 초 미국현실에 대한 역사적 접근에서 본 논문이 가장 주목한 연구이지만, 개츠비의 자본 축적과 소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그의 꿈을 낭만화, 이상화한다는 혐의가 제기된다.

시종일관 무책임과 무가치함으로 재현되는 데이지는 삶의 사연조차도 저택, 옷가지, 자동차들과 같은 소비의 대상으로 삼은 20세기 초 소비권력의 표상이다. 대량생산된 사회 요소들을 소비하며 이에 의미를 부여하고 결정하는 일종의 자기결정권자로서, 그녀는 개츠비의 성공과 헌신마저 소비하고 사라진다. 데이지가 상징하는바, 이러한 소비자적 결정권이 지닌 비윤리성은 머틀을 치고 도주한 그녀의 무책임과 부주의가 말해주듯 종잡을 수 없고, 임의적이며 미정형의 단계에 놓여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데이지에 대한 개츠비의 헌신은 그의 유아론적이고 감상주의적인 몰두에도 불구하고 건국 이래 미국인이 집단적으로 모색했던 바, 절망적이고 적대적인 신대륙에서의 그날그날을 가치있는 미래로 건설하고자 했던 미국인의 자기결정의 맥락에 놓고 볼 수 있다. 작중 화자 닉 캐러웨이의 ‘가로놓인’ 관찰자적 의식은 삶의 가치에 대한 자기결정이 비록 참패하더라도 이를 책임지는 윤리성을 획득하는 한, 당대의 미국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임을 전달해준다.

자본이 개개인의 삶의 사연에 값을 매겨가며 무한 축적의 갈망의 대상이 되어가던 당대의 절망적 현실을 바라보던 피츠제럴드에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란, 그날그날의 자기결정에 대한 개인의 자기희생적 헌신으로 돌파하여 마주하게 될 어떤 것이었음에 분명하다.

---

**Notes**

- 1) 프레드릭 터너(Frederick Turner)는 그의 기념비적 글 『미국사에서 프론티어의 의의』(*The Significance of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에서 19세기 동안 줄기차게 이루어진 미국서부로의 팽창의 결과, 1891년경 변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은 19세기 미국의 팽창이 신에게서 받은 소명임을 주장한 뉴욕의 저널리스트 존 오설리번(John O’Sullivan)의 1845년 기고문에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당시 정치권과 미국 사회에 널리 유포되게 된다.

## 인 용 문 헌

- Breitwieser, Mitchell. *National Melancholy: Mourning and Opportunity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Stanford: Stanford UP, 2007. Print.
- Chandler, Marilyn R. *Dwelling in the Text: Houses in American Fiction*. Berkely: U of California P, 1991. Print.
- Fitzgerald, F. Scott. *The Great Gatsby*. New York: Oxford UP, 2008. Print.
- \_\_\_\_\_. *The Jazz Age*. New York: A New Directions Publishing, 1996. Print.
- Forster, Greg. *Gender, Race, and Mourning in American Modernism*. Cambridge: Cambridge UP, 2011. Print.
- Freud, Sigmund. *On Murder, Mourning and Melancholia*. Trans. Shaun Whiteside. New York: Penguin, 2005. Print.
- Heidegger, Martin. *Existence and Being*. Trans. Warner Brock. Chicago: Henry Regnery, 1949. Print.
- Idema III, Henry. *Freud, Religion, and the Roaring Twenties: A Psychoanalytic Theory of Secularization in Three Novelists: Anderson, Hemingway, and Fitzgerald*. Savage: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0. Print.
- LaCapra, Dominick. *Writing History, Writing Trauma*. Baltimore: Johns Hopkins UP, 2000. Print.
- Moglen, Seth. *Mourning Modernity: Literary Modernism and the Injuries of American Capitalism*. Stanford: Stanford UP, 2007. Print.
- Schiff, Jonathan. *Ashes to Ashes: Mourning and Social Difference in F. Scott Fitzgerald's Fiction*.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2001. Print.
- Turner, Frederick.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Charleston, SC: Bibliolife, 2008. Print.



## Abstract

### *The Great Gatsby* and Ethics of Self-Determination

Ilsoo Lee (Kunsan National University)

Recent studies on *The Great Gatsby* have shown the tendency to regard the work as a mourning narrative which tries to reclaim the lost national manhood in the American modernity. They agreed that the aggressive manhood of the 19<sup>th</sup> century for the fulfillment of the frontier complemented by compassion for one's family and neighbors disappeared with the rise of the ruthless, competitive manhood with the capacity of accumulating the modern capital of the early 20<sup>th</sup> century.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se mourning discourses because they do not seem to provide an appropriate explanation for Gatsby's capitalist aspects who wanted to secure Daisy, the expressive iconography of the early modern consumers of the mass production system in the twenties. He was doomed to fail since he, as an early capitalist aspirant, could not comprehend the arbitrary, unpredictable unworthiness of the consumer aspects of hers. Just as Fitzgerald called forth, in his autobiographical essays, *The Jazz Age*, the true intelligence with self-determination to make a change out of the hopeless present, so in *The Great Gatsby*, the author represented the ethics of self-determination with which Gatsby tried to realize the "yet to come" future, significantly, with his sacrifice to the determined cause.

**Key Words:** *The Great Gatsby*, self-determination, manhood, mourning, consumer

논문접수일: 2019.01.16

심사완료일: 2019.02.03

게재 확정일: 2019.02.13

이름: 이일수 (부교수)

소속: 군산대학교

이메일: [suel@kunsan.ac.kr](mailto:suel@kunsan.ac.kr)